DOI http://dx.doi.org/10.22912/dgsh.2022..75.141

〈일반논문〉

# 중국 동북지역의 3·1운동

김 춘 선 *
최 광 복 **

〈목차〉

Ⅰ. 머리말
Ⅱ. 3·1운동의 지역별 전개 양상
Ⅲ. 3·1운동의 특징과 의의
Ⅳ. 맺음말

[국문초록]

중국 동북지역은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한민족의 항일독립운동의 주요한 활동 무대였다. 1919년 조선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호응하여 중국 동북지역의 한인 집거지구에서는 성세호대한 반일집회와 시위가 전개되어 조선의 3·1운동을 유력하게 성원하였으며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는 물론이고 나아가 대륙침략 정책에도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부분에서는 먼저 1919년 3월 13일부터 조선 국내의 3·1운동을 성원하기 위해 북간도 용정촌에서 전개되었던 3·13반일시위운동의 발발과 전개과정을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용정촌의 3·13반일시위운동이 전 동북지역 한인집거구로 신속히 파급되면서

* 제1저자, 중국 연변대학 인문학원 교수
** 제2저자, 중국 연변대학 체육학원 강사

각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전개된 반일시위운동을 지역별로 나누어 상세히 비교, 분석하였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용정촌의 3·13반일시위운동을 효시로 전 동북지역에서 전개된 반일시위운동의 지역별 특징과 의의 및 그 영향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규명하였다.

1919년 3월부터 4월까지에 걸쳐 중국 동북지역 조선족집거지역에서 전개된 각종 반일집회와 반일시위운동은 그 규모와 시간상에서 전례 없는 것이었다. 이번 운동은 러시아 10월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이후 고조된 민족자결주의 그리고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들의 독립과 민족해방을 위한 기대가 한층 성숙되어 있던 국제적 환경에서 중국 동북지역 한인들이 조선의 3·1운동을 성원하기 위해 진행한 평화적이고 거족적인 반일시위운동이었다. 이번 운동에서 한인동포들은 집회와 시위행진을 단행하면서 일제의 침략만행을 폭로, 규탄하였으며 자신들의 불굴의 반일의지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한인동포들의 드높은 반일기세와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은 일제의 기염을 여지없이 꺾어놓았으며 일제의 식민침략정책에 커다란 타격을 가함으로써 조선국내 대중들의 반일애국투쟁을 크게 고무하였고 나아가 동북지역 기타 민족들의 반제운동도 크게 추진하였다. 특히 이번 투쟁에서 민족독립사상, 민주주의, 자유평등정신, 자산계급인도주의 등 자산계급민주주의사상이 널리 전파되면서 한인동포들은 자신들이 바로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주력군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결과 이번 운동을 계기로 중국 동북지역의 반일투쟁은 기존의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운동에서 본격적인 무장투쟁으로 전환되는 계기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북지역 한인사회와 민족정체성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주제어
한인사회, 동북지역, 3·1운동, 독립운동, 북간도, 연길도윤

# I. 머리말

중국 동북지역은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한민족의 항일독립운동의 주요한 활동무대였다. 1919년 조선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호응하여 중국 동북지역의 한인 집거지구에서는 성세호대한 반일집회와 시위가 전개되어 조선의 3·1운동을 유력하게 성원하였으며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는 물론이고 대륙침략 정책에도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특히 북간도 용정의 3·13반일집회와 시위를 효시로 전 동북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된 3·1운동은 기존의 다양한 독립운동방략을 '무장독립론'으로 귀결시키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지금까지 중국 동북지역 3·1운동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은 연구업적을 거두었다.[1] 우선 한국의 경우 1992년 한중국교가 수립된 이후 양국 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 동북지역에 산재한 관련 사료와 자료(중국지방 당안자료)들이 연이어 발굴되고 특히는 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답사가 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1997년 한국독립유공자협회에서 출간한 『중국동북지역한국독립운동사』이다. 본 연구는 윤병석교수의 주관하

1) 주요한 연구 성과들로는 다음과 같다. 김규철, 「룡정촌 "3·13"반일시위투쟁」, 『룡정문사자료』 제1집,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룡정현위원회문사자료연구위원회, 1986; 송우혜, 「「대한독립선언서」(세칭 「무오독립선언서」)의 실체」, 『역사비평』 3호, 1988; 김동화, 「3·13항일독립시위 운동에 대해」, 박성수 외, 『독립운동사의 제문제』, 범우사, 1992;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중국동북지역한국독립운동사』, 집문당, 1997; 룡정3·13기념사업회·연변력사학회·연변해외문제연구소 편찬, 『룡정3·13반일운동80돐기념문집』, 연변인민출판사, 1999; 리수권, 「장백현 조선족인민의 반일 시위운동」, 『중국조선족발자취총서(1) 개척』, 민족출판사, 1999; 김춘선, 『북간도 한인사회의 형성과 민족운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에 3개 연구단으로 구성된 6명의 전문학자들이 약 2년간의 현지답사를 거쳐 중국 동북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으로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중 3·1운동 부분은 동만, 남만, 북만 등 세 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전개과정을 상세히 고찰함으로서 금후 중국 동북지역 3·1운동에 대한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다음으로 중국의 경우 1992년 한중수교 전에는 주로 한국의 3·1운동과 중국의 5.4운동과의 비교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 학자들을 중심으로 동북지역 항일투쟁사 연구의 일환으로 용정의 3·13반일시위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1999년 3·1운동80주년을 기념하여 용정3·13기념사업회·연변력사학회·연변해외문제연구소에서 공동으로 『룡정3·13반일운동80돐기념문집』을 발간했다. 본 기념문집은 기존의 용정3·13반일시위운동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한 것이라 평가되나 연구범위가 연변지역에 국한 되였거나 구체적인 사건, 인물에 대한 실증연구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여 전 동북지역 3·1운동의 발발과 전개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 성과의 바탕위에서 동북지역 3·1운동의 지역별 전개 양상과 특징 및 의의에 대하여 재 규명하고자 한다.

## Ⅱ. 3·1운동의 지역별 전개 양상

1917년의 러시아 사회주의 10월혁명으로 제정러시아가 붕괴되고, 새로운 혁명정권의 평화선언으로 民族獨立·無賠償·無併合의 3대원칙이 천명된데 이어 1918년 1월에는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미국총통 월슨의 연설이 발표되면서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갈망하던 식민지국가 인

민들은 크게 고무되었다. 특히 동년 11월에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1919년 1월에 개최될 빠리강화회의에서 피압박 약소민족의 독립이 논의되고 결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해외 각지에서 독립운동에 종사하던 수많은 한인 애국지사들은 저마다 조국독립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앉고 청원운동을 조직, 전개하였다.

## 1. 북간도지역

중국 동북지역의 반일지사들은 1918년 말부터 인접지구인 조선과 러시아 연해주의 반일단체들과 밀접한 연계를 취하면서 공동으로 거족적인 반일투쟁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북간도지역에서 파리강화회의에 대한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은 장로파 영국인 선교사 부두일이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에서 온 편지를 통하여 센프란스코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독립집회를 거행한 사실과 미국정부에서 한인대표를 미국강화사절단 수행인원의 신분으로 강화회의에 참가시키는데 동의하였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북간도에 전해지자 용정촌 기독교도들을 중심으로 조선독립문제가 의론되기 시작하였으며,[2] 1918년 12월 하순에는 김약연, 정재면, 강봉우 등 독립지사들은 북간도에서 한 차례 반일시위를 조직할 문제를 둘러싸고 구체적인 토론을 전개하기도 하였다.[3] 이어 1919년 1월 25일 국자가 소영자에서 기독교전도대회 총회를 개최하고 30여 명의 지역대표를 선정했다. 그리고 2월 6일에 김약연은 러시아 한족총회장에게 서한을 보내 일제의 만행을 질책하면서 귀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세계 신문에 광범히 알려 강화회의에서 한국의

2) 姜德相 편, 『현대사자료』 26, 미스즈책방, 1977, 188쪽.
3)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6, 188쪽.

독립이 실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하였다.[4)]

한편 이 시기 니코리스크에 있던 南公善으로부터 수명의 연서로 된 서신이 북간도 국자가에 있는 朴敬喆과 李聖根에게 전달되었다. 서신에서는 독립운동자금 모집과 독립선언서의 제작 및 공식발표를 위한 간도대표의 파견을 촉구하였다.[5)] 이에 따라 2월 8일 북간도지역 독립지사들은 재차 모임을 가지고 북간도대표로 김약연, 정재면, 이중집을 선출하여 연해주로 파견하고 강봉우를 한국 국내로 파견해 공동투쟁을 모의하도록 결의했다. 같은 시기 훈춘지역에서도 별도로 文秉浩와 尹東喆을 대표로 선거해[6)] 연해주로 파견하기로 했다.[7)]

1919년 2월 25일 니콜리스크에서 노령, 서북간도, 조선국내 등지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중령독립운동단체대표회, 또는 전노국내조선인회의가 개최되었다. 대회에서는 독립운동을 추진해나갈 임시정부적인 중앙기관으로서 대한국민의회를 조직할 것과, 향후 독립운동계획을 결의하였다. 이 계획은 대체로 세 개 단계로 나뉘는데, 제1단계는 독립선언서 발표, 태극기 게양, 가두시위운동이고, 제2단계는 국내외 무장세력에 의한 국내진입의 무력시위운동이며, 제3단계는 무력시위운동과 함께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게 하고 파리강화회의 파견대표로 하여금 강화회의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외교활동 단계였다.[8)]

1919년 2월 중순 조선국내에서 3·1운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북간도에 전해지자, 우선 각 지역의 사립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각종 반일활동이 전개되었다. 화룡현 명동학교 대표 劉益鉉, 국자가 도립중학교 대

4)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사료전집』 력사편 항일투쟁사 제2권, 연변인민출판사, 2011, 371~372쪽.
5)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6, 82~86쪽.
6) 최초 훈춘지역 대표로는 梁河龜와 朴兌煥이 선정된바 있다.
7)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6, 82~86쪽.
8)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6, 104쪽.

표 崔雄烈과 金弼守, 소영자 광성학교 대표 金豪, 자동 정동학교 대표 宋昌文 등 5명의 학생대표는 비밀리에 집회를 가지고 각자 본교 학생들을 동원해 반일운동에 관한 연설회 등을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2월 15일 용정내의 야소교청년신도들은 영신학교내에 모여 기독동지청년회를 조직하였으며, 3월 1일에는 金信根이 기독동지청년회의 주최하에 「간도의 장래」란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9)]

이 시기 북간도지역의 반일지사 金永學·具春先·高平 등 33인은 2월 18일과 20일 2차에 걸쳐 연길도윤공서 외교과원인 朴東轅의 자택에 모여 앞으로 전개될 대규모 반일투쟁의 방법과 방략에 대해 논의했다.[10)] 회의에서는 첫째, 간도의 각 교회 및 단체는 상호 협력 단결해 한민족의 독립운동에 힘을 다 바칠 것; 둘째, 러시아지역 한인들의 독립선언서 공표와 동시에 간도 내 모든 단체가 일제히 시위운동을 개시할 것; 셋째, 한민족의 독립선언서가 발표되면 간도 내 각 단체의 유력자는 간도 용정촌에 집합해 독립선언을 위한 기세를 앙양시킬 것 등을 결의했다.[11)] 뿐만 아니라 회의에서는 독립운동의사부를 설립하고 북간도지역을 국자가, 용정촌, 子洞, 八道溝, 平崗 등 5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책임자로 국자가에는 김영학, 李弘俊, 朴東轅, 李聖根을, 용정에 金精을, 자동에 白瑜晶을, 팔도구에 劉禮均을, 평강에 高東煥을 각각 임명했다. 그리고 시위 시 일제군경과의 충돌에 대비해 별도로 광복단(철혈광복단)을 조직했는데 참가자들은 모두 혈서로 서명했다.[12)]

---

9)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6, 14쪽.

10) 회의 참석자 33명중 확인된 인물로는 박동원, 이홍준, 이성근, 박경철, 김영학, 김순문, 강룡헌, 구춘선, 이성호, 고평, 白瑜晶, 최봉렬, 박정훈, 高東煥 등 14명이다.

11)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6, 84~85쪽.

12)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3 , 원서방, 1967, 6~7쪽. 광복단에 참가한 대원들로는 강룡헌·고동환·고평·김순문·김영학·김정·구춘선·최봉렬·이홍준·이성근·이성호·이동식·유례균·박동원·박경철·박정훈·백유정 등이다.

한편 연길도윤은 1919년 2월 초부터 한인들의 움직임이 비상함을 감지하고 2월 23일 각 현 지사들에게 “한인들이 결사, 집회 등 과격한 거동과 행동에 특별히 유의할 것”[13] 을 명하였다. 용정의 일본간도영사관에서도 한인들의 반일정서가 고앙되자 격문[14] 을 붙이는 한편 용정부근 한인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2월 29일부터 한인가택을 수색하여 15명을 검거하였고, 3월 2일부터 3일에 걸쳐 이른바 불령선인으로 지목되는 자 302명을 영사관으로 引致하여 심문했다.[15]

그러나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연길도윤을 비롯한 중국 지방관헌들은 조선국내의 3·1운동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북간도 지방관헌들은 “俄境에는 일본군들이 밀집해 있기에 아경에서 한인들이 경거망동하면 일제에게 빌미를 주어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기에 이들 수령들을 즉시 구축하되 만약 이에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우면 拘留하거나 축출시켜야 한다.”[16] 고 주장하였다. 즉 북간도 지방관헌들은 한인들의 반일운동이 중국의 주권침해와 사회문란을 조성할 수 있기에 단속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연길도윤은 조선국내의 3·1운동에 관한 소식에 접한 3월 9일까지도 각 현 지사들에게 “이번의 조선독립선언에 재간도 조선인들도 상당히 활동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군대는 그들에게 상당한 원조를 주어야 한다. 한편으로 경찰을 동원할 준비를 하여야 하며 만일 일본군대가 운

13) 「조선인들의 집회에 주의를 돌릴 데 관한 연길도윤의 지시」 중화민국 8년 2월 23일,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사료전집』 력사편 항일투쟁사 제2권, 378쪽.
14) 「조선인들의 집회에 관한 조선군사령관이 육군대신에게 보내는 전문」 일본 대정8년 3월 1일,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사료전집』 력사편 항일투쟁사 제2권, 382쪽.
15) 「조선인들의 집회에 관한 조선군사령관이 육군대신에게 보내는 전문」 일본 대정8년 3월 2일,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사료전집』 력사편 항일투쟁사 제2권, 383~384쪽.
16)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사료전집』 력사편 항일투쟁사 제2권, 381쪽.

동을 진압한다는 구실로 침입하면 조선인들과 함께 그들을 격퇴하여야 한다. 조선인들의 집회에 대하여서는 제지하지 말아야 한다."[17] 는 밀령을 내리기도 했다.

1919년 3월 7일 조선국내의 3·1운동 소식과 33명이 서명한 「조선독립선언서」가 북간도에 전달되자 한인들의 반일정서는 전례없이 앙양되었다.[18] 3월 8일 김영학, 강백규 등 반일지사들은 비밀회의를 개최하고 이왕의 연해주와 보조를 맞추려던 계획을 고쳐 3월 13일 독자적으로 용정촌에서 '조선독립축하회'란 명목으로 집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19] 이에 따라 한인사립학교들은 3월 10일부터 일제히 휴학에 들어갔고 학생과 교사들은 거리에 나가 연설을 하고 삐라를 살포하면서 대중들에게 조선 3·1운동의 실황을 소개하고 하루빨리 대규모 독립선언축하회를 거행할 것을 호소했다. 한편 「독립선언서」와 대회개최 「통지서」는 국자가활판소에서 인쇄된 후[20] 신속히 북간도 전 지역에 배포되었다.[21] 이어 독립운

17) 「朝憲機 제169호」, 「독립운동에 관한 건」, 대정8년 3월 27일, 한국학술진흥원, 『3·1운동편』 (2), 1976, 101쪽.

18) 독립선언서를 누가 어떻게 가져왔는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전달된 시간에 대해서는 일본측 자료에서는 3월 7일로 되어 있으나 중국측의 자료에는 3월 1일에 각 향에서 韓京에서 발송해온 독립선언서를 발견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3·13운동에 직접 참가했던 이지택은 1919년 2월 7일 김약연의 지시를 받고 회령에 가서 강봉우를 만나 그가 건네주는 편지 1통을 가지고 이튿날 명동으로 돌아와 김약연에게 전했는데 그 편지가 바로 3·1운동의 독립선언서였다고 회억하고 있는데 사실과 잘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지택, 「北間島」 (17), 《중앙일보》 제2204호, 1972년 10월 31일자).

19) 홍상표, 『간도독립운동소사』, 한광중학교, 1966, 31~37쪽.

20) 당시 일제측은 간도에서는 선언서를 한자와 諺文이 섞인 韓文·中文·俄文 등 세 가지 문자로 인쇄하여 배포, 발송하기로 계획하였다고 파악하였다.

21)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3, 9쪽. 일부 당사자들의 회억에서는 당시 독립선언서와 통지서 등은 명동학교 혹은 은진중학, 제창병원 등 지하실에서 인쇄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

동의사부에서는 11일 대표를 일본영사관에 보내 이번 행동에서 일본관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주는 행위는 취하지 않을 것이니 의사를 발표할 자유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22]

조선국내 3·1운동의 영향으로 북간도지역 한인들의 반일정서가 고조되자 3월 10일 간도일본총영사는 연길도윤에게 중국측에서 군경을 파견해 이번 집회를 제지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만약 귀측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일본은 자체로 군대를 파견해 진압할 것"40)이라고 협박했다. 이런 실정에서 연길도윤공서에서는 3월 11일 "중일친선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일체 제지한다."[23] 는 포고문을 반포했으며, 육군 제2혼성려 보병 제2롄 롄장 孟富德에게 40여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용정에 가서 용정상부분국 군경들과 함께 일본영사관과 외국상인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반일집회를 사전에 단속할 것을 명령했다.[24] 그리고 연길도윤 張世銓은 12일 새벽 국자가에 있는 반일지사들을 도윤공서에 불러놓고 집회와 같은 '불온행동'을 금지할 것을 권유했다.[25] 같은 날 길림성 성장 곽종희도 외교부에 연길지역 한인들이 3월 13일에 육도구에서 독립경축식을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현재 한인수령들을 모아 놓고 자제를 권유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확대시킨다면 무력으로 이를 제지해도 가능한지를 문의하고[26]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

22)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3, 1983, 598~599쪽.
23) 김동화, 「3·13항일독립시위운동에 대해」, 박성수 외, 『독립운동사의 제문제』, 범우사, 1992, 108~109쪽.
24) 「조선인들의 집회에 주의를 돌릴 데 관한 연길도윤의 지시」, 중화민국 8년 3월 12일,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사료전집』 력사편 항일투쟁사 제2권, 381쪽.
25) 楊昭全·李哲煥 編, 『東北地區朝鮮人革命鬪爭資料彙編』 상, 료녕민족출판사, 1992, 372쪽.
26) 중화민국당안자료, 「取締韓墾民聚衆滋事組織獨立軍案」, 길림성장이 외교부에 보낸 전문, 중화민국 8년 3월 12일.

한 실정에서 연길도윤 장세전과 맹부덕은 군경들에게 "상부지 밖에서 진행되는 한인들의 시위운동에 대해서는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상부지내에서의 운동은 절대 금지시켜야 하며 일본인의 생명재산에 해를 끼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서는 상부지 내외를 불문하고 엄격히 취체해야 한다."[27] 고 명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지방당국은 상부지 내, 외를 엄격히 구분하여 한인들의 집회를 단속하는 방법을 취했는데, 이는 당시 지방관헌들이 '同病相憐'의 입장에서 한인들의 반일운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정하지만 주권국가로서 '치외법권' 보호와 일본과의 마찰을 피면하기 위해 선택한 부득이한 조치라 평가된다.

3월 13일 중국지방당국의 경고와 회유에도 불구하고 용정촌에서는 대규모 반일집회가 열렸다. 이날 새벽 날씨가 급변하면서 황토와 굵은 모래가 휘몰아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자가와 용정주변의 여러 향촌으로부터 학생들과 반일군중들이 조수마냥 용정으로 밀려왔다. 德新社와 智新社의 군중들은 명동학교 학생들을 선두로 새벽에 용정으로 출발해 용정촌 어구에서 평강방면에서 온 군중들과 회합했다. 개산툰의 정동학교 교원과 학생들도 악대를 선두로 북을 울리고 나팔을 불면서 온밤을 걸어서 아침 8시에 용정에 도착했다.[28] 같은 시각 大碾子·長仁江·東盛涌·銅佛寺·朝陽川·車條溝·老頭溝·明月溝·依蘭溝·月晴村·樺尖子·葦子溝·石峴·局子街 등지의 학생들과 군중들도 대열을 지어 용정으로 들어왔다. 이 같은 정경을 계봉우는 《독립신문》에서 "일시라도 급촉히 폭발치 않고는 휴식할 수 無한 간북인심은 돌지분화구와 같이 그 열이 최고정에 달했다. 한성 및 기타 각처에서 독립을 이미 선언하였으매 간북에서는 독립축하회

27) 중화민국당안자료, 「한민들의 독립에 대한 금지가 무효이기에 무력으로 제지할 수 있는지 속히 전보로 알리기 바람」, 중화민국 8년 3월 12일.

28) 김규철, 「룡정촌 "3·13"반일 시위투쟁」, 『룡정문사자료』 제1집,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룡정현위원회 문사자료연구위원회, 1986, 201쪽.

를 용정시의 북편인 서전대야에 개하기로 했다. 이때는 3월 13일이다. 회집인수는 3만 명 이상이 되었다. 남녀학교는 물론이오 궁벽한 산촌에 樵童牧叟까지 來會한 듯 하다."[29] 고 묘사했다.

독립선언축하회는 정오 12시 용정천주교회당의 종소리를 신호로 영신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되었다. 그러나 11시 경 수많은 군중들이 회의장에 모여 들자 맹부덕이 거느린 보병과 기병들이 달려들어 해산을 강요함으로써 의사부에서는 집회장소를 서전대야의 동산기슭 조밭으로 옮기기로 하였다.[30] 이날 四面八方에서 중국 군경들의 저지를 무릅쓰고 집회 장소에 모인 군중은 무려 2만여 명에 달했다.[31] 그들은 격동된 심정으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천주교당의 종소리가 울리기를 기다렸다.

사실 용정지역 한인들의 반일정서가 고앙되자 상부국에서는 12일부터 이왕의 守望式 초소를 巡邏式으로 바꾸어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鄭巡官은 영사관을, 吳巡官은 상부국 남단지역을, 曹督察員은 북단지역을 각각 지키면서 한인들의 상부지내로의 진로를 막기로 하고, 기타 경찰들은 상부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긴급임무를 집행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12일 저녁 연길경찰소장 施維賢은 경찰 10명을, 육군 李排長과 依排長 2인은 5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상부지에 와 시소장은 五截樓(오층대 건물), 依排長은 市面을, 李排長은 일본영사관을 각기 맡아 보호하기로 하였다. 13일 아침 8시경, 孟富德톈장도 葉連長, 吳隊長 및 馬隊 30명을 거느리고 용정상부지에 도착했다. 10시경 맹톈장은 상부지 독찰원으로부

29) 四方子, 「北間島, 그 過去와 現在(二)」, 《獨立新聞》 제36호, 1920년 1월 10일자.
30) 당시 간도보통학교 뒤쪽으로 현재의 용정시 제1유치원 마당으로 추정됨.
31) 집회에 모인 인원 수에 대하여 계봉우는 「北間島, 그 過去와 現在(二)」에서 3만명이라 하였고, 중국지방당국은 2만 여 명으로(길림성장의 밀자 제39호), 일본측은 6천 여 명으로(「조특보」 제4호) 각각 집계하고 있다.

터 상부지 한인들이 오늘 12시 천주교당의 종소리를 신호로 일제히 거사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 독찰원을 시켜 교회당에 가서 금일 정오에 종을 울리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명령했다. 그리하여 11시경 천주교당의 金一龍 등 3인이 상부국에 와서 왜 종을 치지 못하게 하는 가고 질문하자 국장은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두 명을 인질로 부국에 감금하고 김일룡만 돌려보냈다.[32)]

한편 오전 10시 반경, 맹톤장은 상부국장과 함께 鈴木領事를 찾아가 본인은 일본영사관과 일본상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보병 130여 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만약 한인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수령은 체포하고 餘黨은 해산시킬 것이며, 무리지어 항거하면 무력으로 제지하여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귀측과 지방의 안녕질서 유지는 모두 본 톤장이 책임지고 있음을 통보하면서 만약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귀 영사께서는 鮮民을 빌미삼아 우리측에 책임을 묻지 말 것을 천명했다. 이에 일본영사는 맹톤장의 厚意에 심심히 감사드리며 만약 선인들이 저항하는 일이 있으면 톤장께서 무력으로 對峙해도 본 영사는 일체를 묻지 않을 것이며, 본국 관리들도 조선내지 인민들에게 대하는 태도도 귀 톤장과 같은 宗旨임을 밝혔다.[33)]

정오가 다가오자 동산기슭에 모인 한인들은 이미 2만 명이 넘었다. 그 중 4명의 수령들이 기를 들고 있었는데 붉은색 기에는 '독립선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외에는 중화민국 국기, 태극기 그리고 상백하홍이색기 등 기들이 있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용정촌상부분국 국장 張恩

32) 중화민국당안자료, 龍井村商埠分局局長張恩積의 보고, 「龍井村埠局呈報鮮人開會宣布獨立情形及死傷鮮人姓名單請鑒核由」, 중화민국 8년 3월 20일,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사료전집』 력사편 항일투쟁사 제2권, 521~533쪽.

33) 중화민국당안자료, 「龍井村埠局呈報鮮人開會宣布獨立情形及死傷鮮人姓名單請鑒核由」, 龍井村商埠分局局長張恩積의 보고, 중화민국 8년 3월 20일.

積은 “군경들이 나서서 해산을 권유하자 한인들은 처음에는 듣지 않았으나 맹탄장의 내심하고 반복적인 설복에 의해 일부 한인들이 조금 동요하고 있을 때 화룡과 연길에서 온 한인 7, 8천명이 집회장소로 밀려오면서 한인들의 기세는 또 다시 충천해졌다.”[34] 고 설명하였다.

한편 상부국의 경고를 받고 교회로 돌아온 김일룡은 계획된 정오에 종을 울릴 수 없어 애간장을 태우고 있을 때, 뜻밖에도 땡, 땡 하는 요란한 종소리가 서전대야에 울려 퍼졌다. 오전부터 교회당 종루에 올라가 사면팔방에서 조수마냥 용정으로 몰려오는 시위군중들을 구경하고 있던 15세의 림민호가 정오가 지나도 대회가 시작되지 않자 친구와 함께 힘차게 종을 쳤던 것이다.[35] 교회당의 종소리를 신호로 사전에 준비된 ‘독립선언축하회’는 시작되었다. 집회군중은 「대한독립」과 「정의인도」라고 대서특필한 두개의 오장기와 태극기 및 중화민국 국기를 세운 중앙을 향해 둥글게 모였다. 대회는 부회장 배형식목사의 개회선언에 이어 회장 김영학이 ‘간도거류조선민족일동’ 명의로 된 「독립선언포고문」과 「공약3장」을 낭독했다.[36] 낭독이 끝나자 “조선독립만세”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이어 유례균·배형식·황지영 등이 선후로 연단에 올라 격정에 넘친 목소리로 조선과 중국동북에 대한 일제의 침략만행을 규탄했다. 그들의 연설에 감동된 군중들은 저마다 눈물을 삼키면서 “독립만세”를 끊임없이 웨쳤다. 이 같은 정형을 김정규는 『야사』에서 “정오 종소리를 맞추어 용정부근에 큰 조선독립 기발을 세우고 사람마다 태극기를 들고 먼저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고 이어 독립을 선언했다. 깃발은 해를 가리고 함성이 우뢰와 같았다. 이를

34) 중화민국당안자료, 「龍井村埠局呈報鮮人開會宣布獨立情形及死傷鮮人姓名單請鑒核由」, 龍井村商埠分局局長張恩積의 보고, 중화민국 8년 3월 20일.

35) 리광인, 「백포 서일 총재 평전」, 『만주벌의 혼–독립군 총재 서일』, 백포서일기념사업회, 2011, 112쪽.

36)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6, 41~42쪽. 조선국내에서 전달된 선언서는 전단으로 대회군중들에게 뿌려졌다.

본 일본인의 얼굴색이 재빛으로 변했다."[37] 라고 기록했다. 그리고 1919년 3월 24일 중국내의《民國日報》는〈延吉韓人之獨立運動〉이라는 주제로 "3월 13일 正午 吉林 延吉 韓人 數千名이 韓國獨立萬歲를 높이 부르며 손에 太極旗를 들고 獨立宣言 傳單을 뿌리면서 龍井村 市街에로 밀려들어왔다. 이 모임은 市郊에도 나가면서 여러 단계로 나누어 祝賀大會를 열었다. 代表 4명이 중앙에 놓인 壇上에 올라 눈물을 흘리면서 演說을 하였고 觀衆들속에는 늙은 婦人도 섞여 있었다. 演說이 끝날 때 萬歲 소리가 四面八方에 울려 퍼졌다."[38] 라고 묘사했다.

교회당의 종소리가 울리자 동산기슭의 한인군중 뿐만 아니라 용정상부지내의 한인들도 분분히 집에서 뛰쳐나와 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워치면서 거리를 뛰어다녔다. 약 천 여 명의 군중들이 군경들에 의해 구축 당했고 상부지내의 한인상점들에서 내건 태극기들도 모두 경찰들에 의해 철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지내 약 7, 8백 명의 한인들은 조선인거류민회를 짓부시려 시도하다가 경찰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들은 약 2시간 경찰들과 대치하다가 상부지 밖으로 나와 시위 대오에 합류하였다.[39] 이와 같이 3월 13일 용정의 반일집회와 시위운동은 서전대야와 상부지 내 두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서전대야에서 개최된 집회는 대회연설이 끝나자 곧 반일시위로 이어졌다.[40] 孔德洽이 오장기를 들고 시위대오 맨 앞장에 섰고 그 뒤로는 큰

37) 김정규,『야사』(15) , 1919년 2월 12일(양력 3월 13일).

38)《民國日報》, 1919년 3월 24일자.

39) 중화민국당안자료,「龍井村埠局呈報鮮人開會宣布獨立情形及死傷鮮人姓名單請鑒核由」, 龍井村商埠分局局長張恩積의 보고, 중화민국 8년 3월 20일.

40) 용정상부분국 曹督查員은 집회이후 대부분 군중은 해산하고 약 2, 3천여 명의 한인들이 기대를 들고 상부지내로 들어오려고 하자 톈장과 군경들은 일렬자로 서서 저지시켰다고 보고하였다(「龍井村埠局呈報鮮人開會宣布獨立情形及死傷鮮人姓名單請鑒核由」, 중화민국 8년 3월 20일).

폭의 태극기와 중화민국 국기를 추켜 든 명동학교와 정동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320여 명의 충렬대[41] 와 국자가 도립중학교 최경호를 단장으로 한 자위대가 행렬을 보호하면서 간도총영사관을 향해 전진했다. 시위 대오에 참여한 군중들은 “조선독립만세!”, “일제의 침략을 반대한다!”, “친일주구를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소리높이 웨쳤다. 이 정경을 목격한 용정의 간도보통학교 학생 200여 명도 약속이나 한 듯 “독립만세”를 부르며 교실창문을 박차고 거리에 뛰쳐나와 시위 대오에 가담했다. 이에 대해 계봉우는 《독립신문》의 기사에서 “倭校長은 密謀를 知하고 그날에 生徒一同을 敎室內에 監囚했다. 天地가 뒤 집는 듯한 大韓獨立萬歲聲을 들은 生徒 等은 一齊히 男憤을 發해 琉璃窓을 擊破하고 또 鐵絲로 만든 板柵을 撤去하고 獨立軍團에 來參해 萬歲를 끝까지 불렀다. 이 光景을 當한 倭校長은 할 일없이 落淚하면서 長嘆 曰 十年敎育이 水泡에 歸했다고 ……”[42] 서술했다. 이날 용정시내의 일본상인들은 아침부터 점포문을 닫아걸고 피신하였고 일본영사도 겁에 질려 갈팡질팡 했다.

시위대오가 간도일본총영사관으로 향하는 五層臺[43] 거리로 밀물처럼 밀려오자 시가와 골목에서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던 맹부덕부대와 경찰들은 일렬자로 서서 저지했다. 그러자 분노한 시위군중은 맹톈장과 경찰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旗杆을 내 저으면서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갔다. 군경들은 시위 군중들이 과격적인 행동을 보이자 시위 군중을 향해 총 사격을 가했다. 큰 깃발을 추켜들고 맨 앞에서 돌진하던 공덕흡과 박문호를 비롯한 수많은 시위 군중들이 순식간에 쓰러졌다. 맹부덕부대의 무차별 사격으로 당장에서 13명이 희생되고, 48명(남성 36명, 여성 12명)이 부상당했

41) 충열대 대장으로는 金極恕설과 김학수설이 있다.
42) 《독립신문》 1920년 1월 22일자 , 2면.
43) 侍天敎堂으로 사용하던 낡은 건물임, 중국지방관서에서는 이 건물을 五截樓라고 불렀다.

으며 94명(남성 84명, 여성 10명)이 체포되었다.[44] 부상자들은 즉시 카나다 선교사 민산해가 운영하는 제창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그들 중 4명은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결국 이날의 시위운동에서 오장기를 들었던 孔德洽을 비롯해 玄鳳律·金承祿·金泰均·張學觀·金鍾默·李堯燮·金炳學·朴尙鎭·蔡昌憲·朴文浩·崔益善·鄭時益·玄相魯·金興植·李裕周·車正龍 등 17명이 순국했다.[45] 이에 대해 용정상부분국 국장 張恩積은 "공포탄을 쏘아 위협하고자 하였는데 不意하게 군경 중 총대를 낮게 든 자가 있어 총탄이 10여 명을 誤中하였는데 이는 실로 부득이한 사정에서 발생한 것"[46] 이라고 변명하였다.

중국군경들의 탄압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구춘선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즉시 시위 대오를 해산시키고 유혈사건을 빚어낸 연길도 윤공서와 용정촌상부분국에 강력한 항의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길림성과 북경정부에 이들의 책임을 묻는 전문을 보냈다.[47] 13일 밤, 3·13 반일운동의 주요 지도자들은 연길 적암평(甩灣子)에 모여 조선독립기성회[48] 를 결성하고 금후 북간도지역의 모든 반일운동을 조직적으로 진행하기

44) 《독립신문》 1920년 1월 22일자, 제2면.

45) 박창욱교수는 「간도국민회를 재차 론함」에서 3·13반일시위에서 사망한 인원수는 19명이라고 주장하였다(룡정3·13기념사업회·연변력사학회·연변해외문제연구소 편찬, 『룡정3·13반일운동』, 연변인민출판사, 1999, 43~44쪽).

46) 중화민국당안자료, 「龍井村埠局呈報鮮人開會宣布獨立情形及死傷鮮人姓名單請鑒核由」, 龍井村商埠分局局長張恩積의 보고, 중화민국 8년 3월 20일.

47) 「조선군 참모부의 전보」 大正八年三月十五日,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사료전집』 력사편 항일투쟁사 제2권, 486~487쪽.

48) 독립기성회의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회장 具春先(하마탕), 부회장 馬晉(대랍자), 議事部員에 劉禮均(팔도구), 金秉洽(의란구), 崔元一(국자가), 高容煥(평강), 裵亨湜(평강), 姜萬禹(국자가), 李臺峴(적암평), 李鳳雨(하마탕), 金舜文(의란구), 金躍淵(명동), 申明德(불명), 鄭載冕(용정촌), 金信根(용정촌), 崔文益(鳳林河), 朴貞勳(평강); 재무부원에 柳讚熙(국자가), 徐成權(국자가), 張奭咸(용정촌); 교섭부원에 高容煥, 裵亨湜, 편집부원에 류하천, 崔起鵬(명동), 金精(용정촌), 통신부원

로 결의했다. 또한 희생된 열사들의 장례식은 17일 용정에서 거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유혈사태에 대하여 3월 13일 연길도윤과 맹부덕은 성장과 독군에게 올린 보고에서 "13일 정오, 각 지역에서 근 2만 명의 간민들이 일제히 용정으로 몰려왔다. 맹부덕 부대는 이들 군중들을 막고 여러모로 설복했으나 이들은 듣지 않고 돌을 뿌리는 등 폭도행위를 하였다. 이에 경찰은 정당적 방위수단으로 총을 쏘아 위협했다. 10명이 즉사하고 4명이 상했다. 군중은 해산되고 상부지는 무사했다. 이에 일본영사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49] 고 보고하였다. 이로부터 미루어 볼 때, 당시 중국 지방당국은 이번 유혈사건은 한인들의 '폭도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적 방위수단'에 의해 빚어진 '부득이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인들의 희생보다는 오히려 상부지가 무사하여 일본영사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50]

한편 용정 3·13반일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중국 지방당국은 한인들이 또 다시 과격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용정일본영사관과 상부국에 대한 경비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우선 연길도윤과 길림

---

에 李弘俊, 姜伯奎(국자가), 金尙鎬(소영자); 경위부원에 朴貞勳, 崔雄烈(명월구), 李靑春(불명), 張禹範(동성용).

49) 중화민국당안자료, 「연길도윤과 맹부덕이 성장과 독군에게 올린 報告」, 1919년 3월 13일,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사료전집』 력사편 항일투쟁사 제2권, 471~474쪽.

50)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6, 88쪽. 3·13운동 참가자인 홍상표는 『간도 독립운동비화』에서 일본경찰은 권총으로 무장한 사복 경관을 밀파하여 중국군인들 사이에 끼여 있다가 시위 군중을 향해 총 사격을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당시 민원장이 부상자에게서 적출한 탄환을 저장한 약병에서 목도하였는데 전부 일본 권총 탄환이었고 장총탄환은 일발도 없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인 이지택은 일본군경들이 시천교당의 낡은 건물에 숨어 있다가 배후에서 총을 쏘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중앙일보》, 1972년 11월 2일자). 그러나 당시 용정상부분국에서 보고한 내용에는 맹부덕부대 병사들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자위적인 차원에서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성공서에서는 "인원을 밀파하여 사리가 밝은 선인지도자들을 깨우쳐 이해득실을 알게 할 것"[51] 을 지시하였고, 상부분국에서는 선인대표 李相鎬, 金一龍, 朴亨嘉, 全榮奎, 李秉洙, 邊裕國, 尹禹絃, 張星南, 陳國祥 등 20여 명을 불러 과격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권유했다.[52] 그리고 14일부터 연길도윤과 맹부덕의 명령에 따라 門督隊官이 60명의 경찰을 거느리고 상부지로 왔고, 돈화에 있는 郎련장도 전련의 병사를 거느리고 용정으로 향해 출발하였다. 그러나 용정촌에 중국 군경들이 계속 증파되자 용정상부지 華商代表 茹沛翰은 15일 현재 지방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본 상부지내에 군대가 계속 주둔하면 상민들이 두려워함으로 즉시 군대들을 철거시켜 인심을 안정시켜 줄 것을 톤장에게 요구하였다.[53] 이와는 달리 용정의 일본인들은 오히려 생명, 재산의 불안을 느끼고 16일 민회의원들이 모여 재향군인들을 중심으로 자위대를 조직하기로 하였으며 영사에 일본군대의 출병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할 것을 결의했다.[54]

3월 16일 열사들의 장례식을 위해 김일룡 등 4명의 대표가 상부분국으로 찾아가 17일 12시경 사망자 공덕흡 등 14명[55] 의 장례식을 동산 영국의원(제창병원)에서 거행하고 영구를 合盛湧燒鍋부근에 매장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17일 오전 수천 명의 군중들이 열사의 추도식에 참여하

51) 연길도윤공서, 「군경들이 조선인을 쏴죽여 인심이 분노해진데 대한 조사 명령」, 중화민국 8년 3월 14일.

52) 용정촌상부분국국장 張恩積의 보고, 「龍井村局長呈報鮮民開會追悼並無滋事請鑒核由」, 중화민국 8년 3월 26일.

53) 중화민국당안자료, 「龍井村埠局呈報鮮人開會宣布獨立情形及死傷鮮人姓名單請鑒核由」, 龍井村商埠分局局長張恩積의 보고, 중화민국 8년 3월 20일.

54) 「朝憲機 第146號」, 大正八年三月十八日,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사료전집』 력사편 항일투쟁사 제2권, 514~515쪽; 중화민국당안, 「길림성장공서 비밀지령 제18호」, 중화민국 8년 3월 17일.

55) 14명의 순난자들로는 박상진·정시익·공덕흡·김태균·김승록·최익선·이유주·김흥식·박문호·이요섭·장학관·현봉률·현상지·차정룡 등이다.

려고 용정촌에 모여들었다. 9시경, 맹톈장이 파견한 마보병 30명이 두 명의 패장의 인솔하에 국자가로부터 상부지에 도착하였고, 상부국의 門督隊과 오순관도 수십 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영사관 부근과 추도회가 개최되는 동산부근의 경계에 들어갔다. 약 3천여 명이 모인 추도회는 제창병원에서 오후 1시에 시작하여 2시 반에 종료되었다. 이어 장례식에 참가한 군중들은 순난자의 영구를 메고 용정 동남쪽에 있는 虛淸里(현 합성리) 공동묘지로 가서 열사들을 안장하고 「忠烈士諸公之墓」라고 새긴 비석을 세웠다. 장례식에 참가한 적지 않은 군중들은 엽총과 칼로 무장하고 있었기에 일제와 지방 군경들은 장례식행사를 감히 간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날 용정촌은 비통 속에 잠겨 있었고 장례식에 참가한 수천 명의 군중들은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일제와 끝까지 싸울 것을 한결같이 다짐했다.[56]

용정촌의 3·13반일시위운동은 신속히 전 북간도지역으로 파급되었다. 연길현에서는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의 한 달 동안에 頭道溝·八道溝·二道溝·龍頭山·中南溝·夾皮溝·局子街·樺田子·八浦江·壽山里 등지에서 반일집회와 시위행진이 거행되었는데 참가인수는 무려 3만 4천여 명에 달했다. 화룡현은 3월 15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七道溝·下廣浦·合仁社·楊木頂子·咸朴洞·沙器洞·新興坪·大磴子·長仁洞·石建坪·海蘭·靑山里·土山子·馬牌 등지에서 반일시위투쟁이 전개되었으며 참가인수는 1만 4,500여 명에 달했다. 왕청현은 3월 26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百草溝·綏芬大甸子·石峴·小東溝·鳳梧洞·春芳社·磊子溝·大坎子 등지에서 반일집회와 시위투쟁이 있었는데 참가인수는 1만여 명에 달했다. 안도현은 당시 봉천성 관할에 있었으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현성과 官地, 松江 등지에서도 반일군중집회가 거행되었다.[57]

56) 김춘선 주편, 『중국조선족통사』 상, 연변인민출판사, 2009, 130~131쪽.

훈춘의 반일시위운동은 黃炳吉을 비롯한 盧宗煥·李明順·羅正和·梁河龜·吳鍾煥·朴根永·崔龍完·文秉浩 등을 중심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다.[58] 3월 1일 훈춘지사는 연길도윤에게 "훈춘북쪽 潘家窯지방에 俄境 한인대표 陳平道와 연길간민대표 林國正 2명이 훈춘지역에 들어와 입적간민 梁河龜 등을 규합하였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아경 한인들은 이미 만여 명이 무장하고 있는데 1개월 내에 아경 蘇城(해삼위에서 서북 3,4백리) 지방에서 독립하고 연훈지방의 한인들은 축하회를 거행하고 선언서를 발표한다."고 보고하면서 "아경에는 일본군들이 밀집해 있기에 아경에서 한국인들이 경거망동하면 일제에게 빌미를 주어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들 수령들을 즉시 구축하되 만약 이에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우면 구류하거나 축출시켜야 한다."[59] 고 제안하였다.

3월 19일 연해주에서 독립선언축하회를 거행하자 황병길 등 훈춘지역의 반일지사들은 이에 호응해 3월 20일에 훈춘현성에서 반일집회와 시위를 단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집회의 순리로운 진행을 담보하기 위해 훈춘현성 한인들을 집결시키는 한편 황구의 북일중학교, 동구의 영생학교, 연통라자의 광동학교 및 흑정자학교와 전신촌학교 등 중 소학교 학생들을 동원하여 집회에 참여시키기로 하였다. 3월 20일 아침 6시 30분경, 훈춘거리의 가가호호들에서 모두 태극기를 내걸고 상점들은 전부 철시했다. 8시경 훈춘동쪽의 大人溝에서 회합한 荒溝·東溝·烟筒磴子 등지의 350여 명 군중들은 60여 명의 학생들을 선두로 "한국독립만세"라

5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3, 1968, 146~152쪽.

58) 「朝憲機 第175號」, 大正八年四月七日,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사료전집』 력사편 항일투쟁사 제2권, 624쪽.

59) 중화민국당안자료, 중화민국 8년 3월 1일,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사료전집』 력사편 항일투쟁사 제2권, 381쪽.

고 쓴 큰 기발을 추켜들고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면서 훈춘현성 동문으로 들어와 이미 시내 안에 집결된 군중들과 회합한 후 朝文과 漢文으로 된 「독립선언서」를 거리에 뿌리면서 시위행진을 단행했다. 훈춘의 반일시위 대오는 초기의 600명으로부터 삽시간에 2,000여 명으로 증가되었다.

한편 연길도윤은 20일 훈춘에서 불온행동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9일 군경 40명을 훈춘으로 파견했다.[60] 20일 약 백명에 가까운 군경들이 두 개 분대로 나누어 훈춘시가와 일본영사분관 및 일본인주택 보호에 임했다. 황병길이 사전에 훈춘지방당국과 어느 정도 타협한 관계로 군경들의 경계는 엄했으나 시위 대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고,[61] 오히려 일부 순경들 가운데는 "彼等의 行動을 가엾게 여기고 落淚하는 자"[62] 도 있었다. 시위 대오는 동문에서 서문 밖 광장까지 행진한 후 황병길의 사회로 독립축하회를 개최했다. 황병길은 "우리 대한국은 십년 전에 橫暴이 極甚한 일본에 합병된 이래 위로는 太皇帝로부터 아래로는 同胞萬民이 慘憺悲慘한 歲月을 지내왔는데 아직도 天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고 今回의 講和會議는 意外에도 한국독립의 기회를 주었다. 때문에 此際 우리 민족은 일치단결하여 비록 行進에 山川이 가로막을지라도 아니 强敵이 있을지라도 銃火앞에 空拳을 휘둘러 마지않는데 이를지라도 身命을 아끼지 말고 多年의 素志 貫徹하지 않으면 안 된다"[63]

60) 「朝鮮軍 司令官이 陸軍大臣에게 보낸 電報」,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사료전집』 력사편 항일투쟁사 제2권, 437쪽.

61) 3월 16일 한민대표 황병길과 이명순은 훈춘현 지사와 육군장관에게 선언서발표 집회를 인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사는 엄하게 권고한 바 있다(중화민국당안자료, 「關於韓民欲要宣言恢復韓國之件」, 吉林憲兵營駐琿分遣所排長王雷堂의 報告, 중화민국 8년 3월 16일).

62) 「朝憲機 第175號」, 大正八年四月七日,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사료전집』 력사편 항일투쟁사 제2권, 629쪽.

63) 「朝憲機 第175號」, 大正八年四月七日,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사료전집』 력사편 항일투쟁사 제2권, 628쪽.

고 호소하였다. 이어 최병문, 노종환, 김진규 등이 선후로 조선을 침략한 일제의 죄악을 규탄하고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말 것을 호소했다. 독립축하회를 마친 뒤 황병길은 계획대로 300여 명의 학생들을 이끌고 동포대 방향으로 갔고, 기타 군중들은 또 다시 동문을 향해 시위행진을 단행한 후 재차 두만강 강변에 모여 악기를 연주하고 만세를 부르다가 오후 1시가 되어서야 자진 해산했다. 이날 훈춘성내 일본인들은 하루 종일 겁에 질려 있었다. 영사관 직원들과 상인들은 남자 37명을 4개 대대로 편성한 외, 별도로 분관 청사건축에 동원되었던 인부들로 1개 대를 조직하여 경비에 임했다. 이와 같이 3월 20일 훈춘에서 전개된 반일집회와 시위는 중국 지방당국과의 타협에 의해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일본영사관에서는 19일 저녁 훈춘보통학교 교원의 밀고에 의해 순경은 동문 외 支那人 宿屋에서 황병길 등이 비밀리에 휴대한 총기(러시아식 보총) 2정, 탄약 60발을 압수하였다고 보고하면서,[64] "이날 시위에 참여한 군중 가운데 500여 명 가량은 장총으로, 그리고 200여 명은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일본 영사관에 이르러 일장기를 내려 가져가기도 하였다."[65] 고 정부에 그 실상을 왜곡하여 보고하였다. 이를 빌미로 조선군사령관은 나남과 회령으로부터 경원에 군대를 증파하기로 결정하고 22일과 23일 이틀간에 332명의 군대를 경원으로 파견하였다.[66]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조사해 본 결과 20일에 비록 많은 한인이 모여 대회를 열었으나 영사관을 교란하지 않았고 일본 국기를 뽑아 버린 일도 없었다. 이것은 일본영사관에서 자위를 구실로 출병하여 입경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하였다.[67] 사실 당일 훈춘지방군경들의

64) 「朝憲機 第175號」, 大正八年四月七日,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사료전집』 력사편 항일투쟁사 제2권, 629쪽.
65) 강덕상 편, 『現代史資料』 26, 91~93쪽.
66) 강덕상 편, 『現代史資料』 26, 93쪽.

엄밀한 보호로 “영사관과 여러 일본상인들은 모두 아무런 공황도 느끼지 않았고 아무런 손실도 없었으며 거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조용”[68]하였기에 훈춘의 일본영사는 훈춘지사에게 깊은 사의까지 표하였던 것이다.[69]

3월 28일 훈춘현 수신사 구사평에서도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훈춘 이남의 獐足登·金塘村·初沼尾·蓮花洞·六道泡子·玉泉洞·黑頂子 등 촌락의 사립학교 사생들을 중심으로 약 4천여 명의 군중들이 이번 집회에 참가했다. 李河英이 금당촌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배부하였고 집회는 구사평 학교마당에서 진행되었다. 주최자 이하영에 이어 회룡봉의 朴亨奎, 금당촌의 吳壽鉉·申商汝·朴春根, 구사평의 金秉權·任基甸·金基玉 등이 선후로 강단에 올라 격정에 넘치는 연설을 하였다. 군중들은 이에 호응하여 만세를 부르면서 두만강연안에서 시위하다가 오후 4시경에 해산하였다.[70]

이외에도 왕청현 배초구와 나자구에서도 일정한 규모의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3월 26일 배초구에서는 金錫九(大汪淸), 桂和(楡樹河), 具子益(蛤螨塘) 등의 주최로 성대한 반일집회가 개최되었다.[71] 이 집회에는 배초구의 사립학교 학생 350명, 대종교교도 300명, 야소교도 300명, 기타 250명 도합 1,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상부지 외 농지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72] 왕청현공서의 경찰국장과 서기를 비롯한 지방관원들이 주최

67) 중화민국당안자료, 「孟恩遠, 郭宗熙致總統總理電」, 중화민국 8년 4월 1일.
68) 강덕상 편, 『現代史資料』 26, 95쪽.
69) 중화민국당안, 「훈춘조선인들이 모여 경축하는 문제와 영사관 방위를 위한 교섭상황에 대한 응지사의 보고」, 중화민국 8년 3월 22일.
70) 「騷密 第382號」, 大正八年四月十八日,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사료전집』 력사편 항일투쟁사 제2권, 654~655쪽.
71) 「朝憲機 第176號」, 大正八年四月七日,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사료전집』 력사편 항일투쟁사 제2권, 633쪽.
72) 「朝憲機 第176號」, 大正八年四月七日,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사료전집』 력사편 항일투쟁사 제2권, 633쪽.

측의 요청에 의해 집회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회에서 강화를 발표하여 한인들의 정의투쟁을 고무하였다.[73] 3월 28일 왕청현 수분대전자(나자구)에서도 金東煥의 주최로 반일집회가 개최되었는데 국자가에서 간 金永學과 柳讚熙을 비롯한 약 2천여 명의 군중들이 참가했다. 나자구의 집회에 대하여 당시 일제는 "간도에 있어서의 暴擧 중심은 수분대전자이며 그 主魁는 김동환"이라고 분석하면서 동 지방은 수년전에 이동휘가 사관학교를 설립 경영하던 곳임을 지적하였다.[74] 이외에도 당시 연길도윤공서 관할 내에 있던 동녕현[75]에서도 3월 17일 秦學新의 주최로 약 4천여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었으며,[76] 3월 25일에는 고안촌에서 포교사 金云三, 崔鳳學과 임시회장 金宗弼의 주최로 반일집회가 개최되었다.[77]

이와 같이 용정의 3·13반일시위운동을 효시로 전개된 북간도지역의 반일시위투쟁은 시간적으로나 규모면에서나 그야말로 전례없는 장거였다. 이번 반일시위투쟁은 일본침략자들의 반동기염을 크게 꺾어 놓았으며 기타 지역 한인들과 여러 민족 인민들의 반일투쟁을 크게 촉진시켰다.

## 2. 길림지역

길림지역의 3·1운동은 상해지역 신한청년단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73) 강덕상 편, 『現代史資料』 26, 127쪽.
74) 「조선군 사령관이 육군대신에게 보낸 전보」 朝特九四〇號, 大正八年四月八日,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사료전집』 력사편 항일투쟁사 제2권, 634쪽.
75) 동녕현은 중화민국 시기 길림성 연길도에 귀속되어 있다가 1934년 위만주국에서 빈강성을 설립한 후 빈강성에 귀속되었다.
76) 「朝憲機 第180號」, 「조선군 사령관이 육군대신에게 보낸 전보」, 大正八年四月十日,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사료전집』 력사편, 항일투쟁사 제2권, 794~796쪽
77)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사료전집』 력사편 항일투쟁사 제2권, 794쪽.

하에 이루어졌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자 신규식, 박은식 등 수많은 독립지사들이 선후로 중국혁명의 핵심지인 상해지역에 망명함으로써 상해지역은 한민족 해외 독립운동의 중요한 기지로 되었다. 이들은 1912년에 동제사(재상해한인공제회)를 결성하였고, 1914년 말에는 북경지역의 독립지사들과 함께 신한혁명당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의 구심체로서 망명정부 수립을 추진하였으나 이른바 '보안법위반사건'이 발생하면서 실패하였다. 그 후 1917년에 러시아 2월혁명이 일어나면서 핀란드, 폴란드 등 국가들이 연이어 독립을 선언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추진하자 상해지역 애국지사들은 크게 고무되었다. 이에 신규식, 조소앙 등은 동년 7월 '국민주권설'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여 기존의 망명정부 계획을 임시정부 수립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1918년 여름부터 독일의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세계대전이 종전으로 치닫게 되자 상해지역의 독립지사들은 「대동단결선언」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눈앞에 다가온 세계정세의 변화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동년 11월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신한청년단을 조직했다.

한편 1918년 11월 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년 12월에는 미국대통령 특사 크레인이 상해에 와서 민족자결주의에 대해 논하면서 "파리에서 개최될 평화회의는 각국인 다 같이 중대한 사명이 있고 그 영향이 심히 큰 것이며, 특히 피압박민족에 대해서는 해방을 강조한 것이므로 약소민족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78] 이라고 역설함으로써 여운영을 비롯한 신한청년단 단원들에게 한국도 청원운동을 통하여 완전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는 강한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리하여 신한청년단은 외교에 능한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파견하고, 여운형을 만주와 노령으로, 장덕수를 국내와 일본으로, 선우혁·김철·서병호·김순애 등을 국내로

78) 김희곤, 『중국관내 한국독립운동단체연구』, 지식산업사, 1995, 76쪽.

파견하여 각각 활동하기로 하였다.

길림지역의 3·1운동은 1980년대 말까지 대체로 「무오독립선언서」로 대변해왔다. 그러나 세칭 「무오독립선언서」라 불리는 「대한독립선언서」는 무오년(1918)이 아니라 1919년 3월 趙素昻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송우혜에 의해 밝혀졌다.[79]

1917년 7월 상해에서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추진하던 조소앙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1918년 11월 동북지역으로 옮겨 한인 동포들의 규합에 주력하다가 이듬해 1월에 길림으로 갔다. 마침 이 때 봉천에 있던 정원택이 상해의 신규식으로부터 1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는 구라파 대전의 종식과 미국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 파리강화회의 등 소식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지금 상해의 동지들은 미주의 동지들과 연락하여 독립운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파리에 특사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으니 빨리 길림으로 가서 박찬익과 상의하여 서, 북간도의 동지들에게 준비하도록 통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80] 이에 정원택은 즉시 길림에 가서 박찬익, 조소앙, 여준 등을 찾아가 신규식의 의견을 전달하고 활동방침을 논의했다. 결과 1919년 음력 정월 27일(양력 2월 27일) 여준의 집에서 여준, 김좌진, 박남파, 손일민, 정원택 등은 대한독립의군부를 설립하고 정령에 여준, 부령에 조소앙이 각각 선임되었다. 이튿날 의군부에서는 긴급회의를 열고 상해에 길림대표를 파견하는 것을 비롯하여 신속히 서북간도와 노령과 연락을 취하고 마필과 무기를 구입할 것과 선언서를 작성하여 국내외 각지에 보낼 것 등을 결의했다. 이에 근거하여 선언서는 조소앙

79) 송우혜, 「「대한독립선언서」(세칭 「무오독립선언서」)의 실체」, 『역사비평』 3호, 1988. 송우혜는 본 논문에서 조소앙의 『自傳』의 기록, 志山 鄭元澤의 『志山外遊日記』, 一泉 金龍國의 기록, 「대동단결선언」과의 문장 비교 등 방법으로 「대한독립선언서」의 작성자와 작성시간을 고증하였다.

80) 정원택, 「지산외유일기」, 김영호 편, 『항일운동가의 일기』, 서문당, 1975, 290쪽.

이 기초하고, 정원택이 인쇄 및 발송을 책임지며, 성낙신과 김문삼은 서, 북간도와의 연락을, 정운해는 조선국내에 들어가 자금을 조달, 김좌진은 노령에 들어가 무기를 구입하는 임무를 각각 맡기로 하였다.[81] 결과 2월 1일(양력 3월 2일) 조소앙은 동생 조용주와 함께 선언서를 작성하였으며, 3월 11일부터 정원택 등이 선언서 4천부를 석판으로 인쇄하여 서, 북간도와 노령, 구미, 북경, 상해, 국내, 일본 등지로 발송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대한독립선언서」는 기타 「2·8독립선언서」나 「3·1독립선언서」가 발표될 때와는 달리 특정한 발표행사나 집회, 시위 등의 행사가 없이 인쇄된 즉시 세계 각지에 발송됐다. 선언서 발기자 39명의[82] 거주 지역은 대체로 길림, 상해, 북간도, 서간도, 미주, 노령, 북경 등으로 나뉘는데 그중 길림이 7명, 상해 3명, 서간도 5명, 북경 4명, 북간도 3, 북만 1명, 노령 9명, 미주 4명, 지역불명 3명으로 나타나 있다. 조소앙이 선언서 작성임무를 맡은 때로부터 석판으로 인쇄하여 각 지역에 발송한 3월 11일까지는 불과 12일에 불과함으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39명 발기자들의 동의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러므로 39명의 발기자들의 명단은 독립의군부에서 선언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각 지역 교포사회의 명망가들의 이름을 일방적으로 발기자의 명단에 올렸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독립의군부는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한 후 길림대표로 선출된 조소앙과 정원택, 박찬익 등은 상해로 가고, 김좌진은 북간도로 이동하는 등 소속 인원이 각기 흩어짐으로서 조직은 곧 해체되었다. 그러므로 「대한

81) 정원택, 「지산외유일기」, 김영호 편, 『항일운동가의 일기』, 310~312쪽.

82) 발기인 39명은 金敎獻·金奎植·金東三·金躍淵·金佐鎭·金學萬·鄭載寬·趙鏞殷·呂準·柳東說·李光·李大爲·李東寧·李東輝·李範允·李奉雨(李鳳雨)·李相龍·李世榮(李天民)·李承萬·李始榮·李鍾倬·李沃·文昌範·朴性泰·朴容萬·朴殷植·朴贊翊·孫一民·申檉·申采浩·安定根·安昌浩·任椰·尹世復·曹煜(曹成煥)·崔炳學·韓興·許嬀·黃尙奎 등이다.

독립선언서」를 작성, 발표했던 길림지역에는 오히려 아무런 집회나 시위운동이 전개되지 못했다. 이로부터 미루어 볼 때, 대한독립의군부의 「대한독립선언서」는 국외거주 동포사회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내세워 한민족의 자주독립의사를 세계에 선포하는 방식으로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할 민족대표의 정당성과 "육탄혈전"으로 독립을 쟁취할 것이라는 한민족의 굳은 결심을 천명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83]

## 3. 서간도지역

서간도지역의 3·1운동은 북간도와 같이 통일적인 지휘하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각 현을 중심으로 분산적이고 소규모 형태로 진행되었다.

유하현은 3월 12일 이상룡의 주최하에 200여 명 한인들이 삼원포 교회에 모여 3·1운동 경축대회를 열었다. 대회에서는 동명학교 교장 한경희 목사를 비롯하여 백남준, 박범조 등이 정열에 찬 연설을 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대회가 끝난 후 흥분한 한인들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삼원포 시내를 향해 시위행진을 단행하였다.[84] 시위 군중들이 "나의 강산을 돌려달라", "일제는 물러나라", "독립만세" 등 프랑카드를 들고 삼원포로 밀려오자 중국 군경들은 이들을 "한인폭란"이라고 하면서 총 사격을 가해 9명이 쓰러졌다. 이외에도 3월 19일에는 은양학교, 삼성여학교 등 기독교학교 학생과 한인 220명이, 20일에는 부민단 250여 명, 21일에는 이계동의 주최로 유하현 大沙灘 보흥학교 운동장에서 수백 명의 학생과 주민들이

83) 송우혜, 「「대한독립선언서」(세칭 「무오독립선언서」)의 실체」, 『역사비평』, 3호, 1988 참조.

84) 金鍾植, 「만주의 3·1만세운동의 첫 봉화 – 삼원포 3·1운동 –」(필사원고),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집문당, 1997, 261쪽에서 재인용.

모여 반일집회를 개최했다.[85]

환인현에서는 3월 6일 黃永瑞와 김두칠의 주최로 최초의 반일시위가 단행되었다.[86] 이어 3월 23일 夾皮溝의 500여 명 한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부근의 농촌마을을 돌아다니며 반일시위를 벌렸다. 당시 11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들의 반일시위를 목격했던 李基淳 노인은 당시 "우리 부모들은 흰 한복을 입고 나섰는데 산골짜기 마다, 마을마다 온통 흰 눈으로 덮인 것 같았다."고 회억하였다.[87] 같은 시기 五里甸子·三家窩棚·大鏡溝·橫道川·腰營溝·馬圈子 등지에서도 선후로 소규모 반일시위가 일어났다.[88] 4월 5일 통화현 합니하에 거주하는 郭鍾錫이 환인현 上漏河 二道陽岔 桓東學校에 와서 이 지역의 민족운동세력과 합세하면서 반일시위가 전개되었다. 이날 곽종석을 대장으로 한 천여 명의 군중들은 일제의 주구인 조선인조합 里岔溝 지부장 公靑松과 서기 李承甲을 처단하였다.[89] 이어 4월 17일에는 최석과 이창덕의 발기하여 홍석뢰자에서 집회를 개최했으며, 19일에는 김길보의 주최로 납자구에서 집회를 열고 독립만세를 고창였고, 20일에는 김하구의 인솔하에 횡부자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통화현에서는 3월 12일 金斗伙洛에서 기독교 신도와 한인청년회 회원 3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반일시위를 단행했으며, 15일에는 일본경찰 桂成柱를 포박하여 논죄한 후 처단하였다. 이어 3월 17일에 통화노공농학교 운동장에서 500여 명의 한인군중들이 집회를 가진 후 태극기를 들고 시위행진을 하면서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지방당국에서는 군경들을 파견하여 무력으로 해산시키고 주모자 李慶植 등 8명을 체포하여 일본영사관

85)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7, 미스즈책방, 1977, 95, 111쪽.
86) 석원화, 『한국독립운동과 중국』, 상해출판사, 1995, 20쪽.
87) 김양 저, 『압록강류역의 조선민족과 반일투쟁』, 료녕민족출판사, 2001, 213쪽.
88) 환인현민족사무위원회 편찬, 『환인현조선족지』, 내부발행, 38쪽.
89)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7, 150쪽, 「소밀 제121호」, 1919년 4월 29일.

에 넘겼다.[90] 3월 20일과 26일에 快大茂村 한인들도 태극기를 흔들면서 반일시위를 단행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집안현에서는 3월 17일 치화보 뢰석차 기독교인들의 집회에 이어 3월 21일에는 金希山의 주최로 현성에서 반일 집회와 시위행진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楊木橋子에서는 이영철과 임임풍의 주최로, 韭菜圈子에서는 林載豊의 주최로 집회와 시위가 전개되었다. 그리고 3월 25일 大檜溝 천도교 구장 김충익의 주최로 유수림자에서 집회와 시위행진이 있었고, 31일에는 白時完의 주최로 400여 명의 한인들이 磊石岔 耶蘇教堂 앞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같은 날 冲和堡, 小陽岔의 천도교 교구장 金呂植과 奉訓, 金秉七 등 천도교도 120여 명은 대양차 보갑국 부근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外岔溝시가에 들어가 태극기를 흔들면서 시위를 단행하였으며,[91] 납석차에서도 高鍾鎬 등의 주최로 600여 명의 기독교와 천도교인들의 집회와 시위가 벌어졌다. 집안현의 반일시위운동은 4월에 들어서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4월 3일 西聚保의 기독교인 崔錫俊, 李尙根 외 6명은 致和堡 雙岔河의 田俊杰 등과 함께 韓族會를 조직한 후 한인 20여 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만세시위를 벌렸으며, 4월 8일에는 通溝의 한인군중 200여 명이 일제의 앞잡이 기관인 조선조합총지부를 습격하고 馬鮮溝로부터 통구를 향해 시위행진을 하였다. 지방관헌은 이들을 저지하면서 주동자 5명을 체포하였다. 4월 12일에는 皮條溝에서 金洛九의 주도로 한인 200여 명이 반일시위를 벌렸고, 4월 18일에는 祥和堡의 한인 약 200명이 秋皮溝에 집합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압록강을 따라 반일시위를 단행했다. 4월 19일 拉子溝 6구장 金吉甫의 주도하에 한인 250여 명이, 그리고 高馬嶺 大陽岔에서는

90) 《성경시보》, 민국8년 3월 26일자.
91)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7, 116쪽.

10구장 金廷俊의 주도하에 300여 명이 반일시위를 단행하였으며, 4월 20일에는 橫浮子溝에서 11구장 金河龍의 주도하에 300여 명의 반일시위가 있었고, 22일에는 노황지 대양차에서 김형진의 주도하에 반일시위가 있었다.

흥경현에서는 3월 19일 한인동포들이 縣城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습격하였고, 왕청문에서는 3월 21일에 김철배의 인솔하에 약 400여 명에 달하는 한인군중들이 의용단을 조직하고 교회당에 집결하여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이날 삼원포와 합니하, 왕청문 등지의 기독교, 천도교 및 부민단원 500여 명도 왕청문 기독교회당에 모여 시위를 단행한 후 압록강을 넘어 조선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현지사의 명령을 받고 달려 온 경찰소장 李世唐의 군경들에 의해 저지당했다.[92] 그리고 5월 초에는 紅廟子村 동흥학교 교장 李世日의 주최하에 흰옷을 입은 수백 명의 한인들이 동흥학교 운동장에 모여 반일집회를 가진 후 손에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十五間房 방향으로 시위행진을 단행했다. 같은 시기 永陵街에서도 陰成進, 陰成國 형제의 영솔하에 반일시위가 이루어졌으며 南加禾, 平頂山, 湯圖 등지의 한인군중들도 반일시위를 벌렸다.

관전현에서는 3월 하순부터 통화현과 환인현의 한인들은 제휴하여 무기를 준비하는 등 무장행동을 계획하였다. 4월 1일 小不太遠 한인 100여 명이 모여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조선조합지부 사무실로 몰려가 지부장인 친일파 李燦奉과 지부 평의원 李鳳奎를 포박한 후 조합업무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였다.[93] 4월 3일과 4일에는 下漏河와 草荒溝의 기독교와 천도교 신도 200여 명이 초황구 예배당에 모여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반일집

92)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7, 118쪽.
93)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7, 116쪽.

회를 가졌으며, 尹熙順과 柳敦相 등은 石頭城, 湯伴城, 王家溝 등지에서 반일집회와 반일시위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4월 10일 李萬熙와 金貞祿은 소불태원과 하루하의 한인 300여 명을 인솔하여 압록강변 石柱子에서 군중집회를 열고 "일본관헌의 정탐은 발견하는 대로 살해하고 그 밀정을 숙박시킨 자도 살 하는 것과 금후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의 통지를 받았을 때 신속하게 집합하여 모두 생사를 함께 할 것"을 호소하였다.[94] 또한 灣溝에 거주하는 金守官 등은 太平哨에서 결사단을 조직하고 小雅河와 환인지역의 한인들을 모집하여 무장시킨 후 4월 10일경 조선국내 진입작전을 계획하기도 하였다.[95]

장백현에서는 3월 16일 한인 천도교신도 약 30여 명이 태극기를 들고 시위행진을 하면서 일본헌병주재소를 습격하였다. 이어 17일에는 장백현 내 예수교신도 및 각 구장, 툰장 그리고 지명인사 약 35명이 長白街에 있는 李昌雲의 집에 모여 비밀집회를 가졌으며, 19일에는 薛寬協과 김관계의 영솔하에 18도구와 팔도구에서, 29일과 30일에는 장백현 제7정몽학교에서 300여 명이 모여 각각 반일집회와 시위행진을 단행하였다. 4월에 이르러 장백현 내의 반일시위투쟁은 劉一優, 이창운, 金秉瀾의 지도하에 계획적으로 전개되었다. 4월 8일 정몽학교 학생 25명이 장백현성에서 만세시위를 단행하였고, 4월 10일에는 천도교도, 기독교도 및 학생 70명이 조선국내인 惠山鎭에 진입하여 시위를 벌렸다. 그후 유일우 등은 장백현 일본헌병주재소의 감독보조원들을 이창운의 집에 모아놓고 하루 빨리 각성하여 병기를 탈취하고 도주할 것을 경고하였고, 5월 3일에는 비밀집회를 소집하고 금후 반일운동의 방략으로 무장투쟁을 채택하고 조선, 중국, 미국, 러시아 등지에 연락소를 설치하고 군자금모집에 주력할 것을 결의하

94) 「騷密 第673號」, 「義州隊長報告」 大正八年四月二十二日, 김춘선 주필, 『중국 조선족사료전집』 력사편 항일투쟁사 제2권, 452쪽.

95)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7, 130쪽.

였다.[96]

환인현에서는 3월 23일 한인동포 400여 명이 모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벌이다가 중국 관헌에 의해 해산되었다. 그리고 4월 10일 郭鍾錫의 주도하에 100여 명의 한인들이 무장시위를 진행하면서 일제의 앞잡이 조선인조합 裡岔溝 지부장 公靑松과 서기 李承甲을 응징하였으며,[97] 동년 7월 孫克章과 孫炳憲 등의 발기하에 韓僑公會를 설립한 이후부터는 마권자를 중심으로 군자금 모집과 친일주구 숙청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98]

무송현에서는 4월 상순 露水河 부근의 한인 150여 명이 林淳基의 주도하에 시위운동을 벌렸는데 임순기의 義弟인 宋昌燮이 100여 명의 무장시위대를 거느리고 이에 호응하였다. 그후 장백현과 안도현의 의병계 세력들이 무송에 집결하여 한교보위단을 결성하였는데 대원은 약 80여 명으로 그중 반수가 화승총이나 러시아 3연발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99]

임강현에서는 3월 29일 팔도구 한인 200여 명이 반일시위를 단행하려고 집합하려다가 지방당국에 의해 강제해산 되자 이튿날 11시에 다시 한인학교에 모여 조선독립 만세를 높이 부르며 반일집회를 개최했다.

해룡현은 한인 인구가 많지는 않았지만 유하현의 영향을 받아 태극기 게양시위와 군자금 모금운동 등이 있었다. 北山城子·橫道河子·四八縣·四馬溝·到太溝 등지에서 독립을 기념하여 일요일에는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였으며 대황구에서도 백가장 金尙鎔과 부백가장 李永壽의 조직하에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였다.[100]

---

96) 강덕상, 『현대사자료』 27, 151쪽; 리수권, 「장백현 조선족인민의 반일 시위운동」, 『중국조선족발자취총서(1) 개척』, 민족출판사, 1999, 475~477쪽.
97)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7, 150쪽.
9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3, 1973, 711~713쪽.
99)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7, 165쪽.
100)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7, 145쪽.

이와 같이 서간도지역 3·1운동은 3월초 유하현 삼원포에서 시작되어 신속히 전 서간도지역으로 확산되어갔다. 그리고 4월에 들어서면서 부민단과 의병계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별로 진행되던 운동은 점차 연합형태로 발전되어 갔으며 평화적인 집회와 반일시위운동도 친일분자 숙청, 조선국내 진입, 무기구입과 반일단체 건립 등 무장투쟁을 위한 준비 단계로 들어갔다.

## Ⅲ. 3·1운동의 특징과 의의

1919년 동북지역에서 전개된 3·1운동은 동북지역에 한인사회가 형성된 이래 전례없는 거족적이고 평화적인 대규모 반일시위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청원운동의 일환에서 서북간도와 길림을 중심으로 모든 한인집거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전개되었기에 조선국내의 3·1운동에 대한 지지와 성원이라는 공동분묘를 제외하고도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부동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지리조건으로 말미암아 나름대로의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동북지역의 3·1운동은 단순히 조선의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돌발적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독립지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이룩한 해외 독립운동기지에 기반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한 대규모 반일시위운동이라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 동북지역에는 조선후기부터 한인들의 대량이주가 이루어져 19세기 말에는 두만강과 압록강 북안 지역에는 한인촌락이 형성되었다. 이를 토대로 일제 조선강점 후 동북으로 망명한 애국지사들은 민족교육을 통해 수많은 반일인재들을 육성하였고, 자치운동을 통해 한인들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권리를 획득케 함

으로써 한인사회는 명실상부한 해외 독립운동기지로 발전하였으며, 나아가 이번 3·1운동의 사회적 기반과 사상, 조직적 토대를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1919년 초 미국, 연해주, 상해 등 지역에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청원운동의 움직임이 보이자 동북지역의 독립지사들은 연해주 및 조선국내와 밀접한 연계를 취하면서 공동으로 반일운동을 진행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2월 초에는 연해주와 조선국내에 간도대표를 파견하였고, 18일과 20일에는 독립의사부를 건립하고 앞으로 전개될 대규모 반일투쟁의 방법과 방략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때 조선국내에서 3·1운동이 발발하였기에 이를 성원하기 위해 용정촌의 3·13운동을 효시로 전 동북지역에서 대규모적인 반일집회와 시위가 전개되었던 것이다.

둘째, 동북지역의 3·1운동은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북간도 용정촌의 3·13운동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반일시위로서 연길, 화룡 등지의 2만 여 명 군중들이 참가한 대규모 반일집회였다. 그리고 훈춘과 왕청현에서 전개된 반일집회와 시위는 규모는 작으나 지방관헌들의 동정, 내지 지지와 성원이 있었던 점이 특징적이다. 이외에도 황병길의 주최로 진행된 훈춘현의 반일시위운동은 계획단계로부터 「독립선언서」의 사용 및 인쇄 등 측면에서 볼 때 북간도보다 연해주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간도지역은 통일적인 영도가 없이 시작 단계에 있어서는 각 현을 단위로 분산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4월에 들어서면서 반일단체들과 의병계열의 반일지사들이 참여하면서 연대투쟁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서간도지역의 3·1운동은 비록 규모는 작아도 단순한 집회와 시위에 그치지 않고 친일주구와 친일단체에 예봉을 돌리거나 조선국내의 진입을 시도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중국지방관헌도 북간도에서는 어느 정도 묵인하거나 동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서간도에서는 한인들의 집회와 시위를 무력으로 저

지함과 동시에 독립지사들을 체포하여 일본측에 인도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셋째, 동북지역 3·1운동에서 작성, 공표된 길림의 「대한독립선언서」와 북간도의 「조선독립선언서포고문」[101] 은 기타 지역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에 비해 무장독립론을 보다 뚜렷히 천명하였다는 점이다. 「대한독립선언서」에서는 "起하라 獨立軍아, 齊하라 獨立軍아, 天地로 網한 一死는 人의 可逃치 못할바인즉 犬豚에 等한 一生을 누가 苟圖하리오, 殺身成仁하면 二千萬同胞는 同體를 復活할 것"이며, "肉彈血戰으로 獨立을 완성할 지어다."라고 하여 한민족은 반드시 무장투쟁으로 독립을 달성할 것임을 천명하였고, 「조선독립선언서포고문」에서도 "포연과 탄우를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리오. 二人同心이면 그 날카로움이 쇠를 끊는다 하였는데 하물며 우리 2천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도다. 한번 발을 디디면 태산을 넘어뜨릴 수 있고 다시한번 한발 내디디면 창해를 메울 수 있으니 어찌 어렵겠는가. 동포여 전진하라. 동포여 맹진하라. 반드시 성공을 기하리라"[102] 고 선언함으로써 한민족의 불요불굴의 정신과 기어코 독립을 달성하리라는 굳은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와 같이 「대한독립선언서」와 「조선독립선언서포고문」은 다른 선언서에 비해 국제 외교적 처리에 의한 독립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포연과 탄우"도 마다하고 오직 "육탄혈전"으로 독립을 쟁취하려는 강한 의식을 보여주었다.

넷째, 동북지역 3·1운동의 주력은 청년학생들이라는 점이다. 북간도의 명동·정동·창동·광성 등 학교와 서간도의 신흥, 삼성·보흥·배달·신창·동명·동창·백산 등 학교 학생들은 운동의 계획과 조직단계로부터 주도적 역

101) 김약연 등 17명의 '재남북만주조선민족대표' 명의로 된 이 포고문은 당시 북간도 반일운동의 실질적인 주역이었던 김약연이 용정촌 3·13운동 직후 동북지역 한인 대중들을 지속적으로 반일투쟁에 궐기시키기 위해 새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102) 중화민국 외교보존서류, 1919년 4월, 길림성장의 밀자, 제22호.

할을 놀았다. 서북간도 학생대표의 연해주 파견을 비롯하여 시국강연, 삐라 제작과 산포, 기독교동지청년회·충렬대·자위단·맹호단·암살대·단지동맹 등 반일단체 결성, 친일파 숙청, 각종 신문 발간, 군자금 모집 등 모든 분야에서 학생들이 제1선에서 선봉대 작용을 발휘했다. 이에 대해 일제측도 "韓族독립운동의 수모자는 이 시위운동의 급선봉으로서 가장 북령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 운동에 참가하고 열심히 행동한 명동예수학교, 정동학교, 연길도립중학교의 학생과 직원들이다"[103] 고 분석하였다.

다섯째, 동북지역 3·1운동에 참가한 계층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이번 운동의 중심에서 핵심적 작용을 발휘한 학생들은 물론이고 일반 농민과 상인들을 비롯한 노인과 어린이들 까지도 이 운동에 동참하였다. 이외에도 민족주의자, 유림인사, 기독교도, 천주교도, 공교도, 대종교도 등 부동한 이념과 신앙의 소유자들도 모두 이 운동에 참가하였으며 지어는 당지의 개별적인 외국인선교사까지도 적극적인 성원을 보냈다. 한 마디로 이번 운동은 신분, 직업, 신앙, 성별, 연령 등 제반 조건을 초월한 거족적인 반일운동임과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동북지역에서 온양되어 온 민족독립운동의 일대장거인 것이다.

여섯째, 동북지역의 3·1운동은 기타민족 진보인사와 유지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는 점이다. 용정촌의 3·13운동과 순난열사추도대회에는 용정동산학교와 국자가 도립중학교의 일부 한족교원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그리고 용정촌의 3·13운동 시 북간도 각지의 한족지사들과 함께 '조선반일민족독립운동성원회'를 조직하였던 연길도립 제2중학 학감 關俊彦은 시위 군중들이 지방관헌의 탄압을 받아 희생되자 지방군경들의 무모한 행위를 질책했으며, 일부 한족인사들은 지방관병들

103) 朝憲機, 제157호, 「독립운동에 관한 건」, 大正八年三月二十七日, 『3·1운동편』(2), 한국학술진흥원, 1976 , 96쪽.

에게 "중한 인민들은 단결하여 공동의 적 일본침략자를 반대하여야 하며 총부리를 한인에 돌려서는 안 된다"고 항의하기도 하였다.[104] 그리고 3월 13일 연길현 이도구에서 열린 조선독립경축대회에도 많은 중국인들이 함께 어울려 일제를 규탄하고 조선의 독립을 축하하였으며,[105] 배초구의 집회에도 중국관원들이 참석하여 한인들의 반일투쟁을 지지하여 나섰다.[106] 그리고 제창병원에서 무료로 부상자들을 치료한 금액은 무려 2천여원에 달했고 영국인 용정세관장은 부상자들에게 사과 한 상자를 보내왔으며, 모 서양부인은 전시 부상병들에게 보내려던 多數의 衣服을 기부하기도 하였다.[107] 상해의 《독립신문》과 《民國日報》[108], 길림의 《길장일보》[109] 천진의 《大公報》[110] 등 신문들도 이번 반일시위투쟁을 국내외에 널리 보도하면서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지역의 3·1운동은 일제의 간섭과 동북군벌의 탄압으로 하여 기대했던 바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자못 크다.

우선 동북지역의 3·1운동은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와 대륙침략정책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한인들은 반일집회와 시위운동을 통해 일제의 침략만행을 강력히 폭로, 규탄함과 동시에 한민족의 반일지향과 독

104) 정협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연변문사자료』 제2집, 1984 , 22쪽.
105) 朝憲機, 제157호, 「독립운동에 관한 건」, 大正八年三月二十七日, 『3·1운동편』 (2), 한국학술진흥원, 1976 , 97쪽.
106) 姜德相 편, 『現代史資料』 26, 127쪽.
107) 《독립신문》 제29호, 1919년 11월 20일자.
108) 1916년 상해에서 창간된 진보신문이다. 창시인은 중화혁명당 총무부장인 陳其美이고 주편은 葉楚傖이다. 1924년 2월 중국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국민당 중앙기관보로 되었다.
109) 1909년 길림성 자치회장 松毓과 顧植 등이 장춘에서 창간한 근대신문이다.
110) 1902년 천주교 교도인 柴天寵, 樊國梁 등이 천진에서 설립한 중국 근대신문의 하나이다.

립의지를 남김없이 표명함으로써 일제의 기염을 여지없이 꺾어 놓았으며 한인대중들을 비롯한 기타 민족의 반일의지를 크게 고무하였다.

다음으로 이번 운동을 통하여 자산계급민주주의 사상이 진일보 전파되었다. 운동과정에서 민족주의자들은 선언서, 포고문, 연설, 구호 등을 이용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밝혔으며, 민족의 독립, 민족의 자유, 민족의 정의, 민족의 인도 등을 역설하였다. 그리하여 민족독립사상, 민주주의 자유평등정신, 자산계급 인도주의가 널리 전파되었다. 이는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민족교육운동과 언론, 출판, 결사 등을 통한 신문화운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튼튼히 닦아 놓았다.

세 번째로는 무장독립운동의 전환점으로 되었다. 이번 운동에서 한인들은 단결의 힘을 보았으며 자신들이 바로 민족해방투쟁에서의 주력군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평화적인 3·1운동이 반동군벌의 무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자 한인들은 제국주의와 동북군벌의 본질을 간파하게 되었으며,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민족의 철저한 해방을 쟁취하려면 반드시 무장투쟁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무장독립론의 진리를 절실히 깨달았다. 결과 3·1운동을 계기로 동북지역 한인 집거지역에는 수많은 반일단체들이 건립되면서 본격적인 무장투쟁이 전개되었다.

## Ⅳ. 맺음말

1919년 3월부터 4월까지에 걸쳐 동북 조선족집거지역에서 전개된 반일집회와 반일시위운동은 규모와 시간상에서 전례 없는 것이었다. 이번 운동은 러시아 10월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이후 고조된 민족자결주의 그리고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들의 독립과 민족해방을 위한

기대가 한층 성숙되어 있던 국제적 환경에서 중국 동북지역 한인들이 조선의 "3·1"운동을 성원하기 위해 진행한 평화적이고 거족적인 반일시위운동이었다. 이번 운동에서 한인동포들은 집회와 시위행진을 단행하면서 일제의 침략만행을 폭로, 규탄하였으며 자신들의 불굴의 반일의지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한인동포들의 드높은 반일기세와 불요불굴의 투쟁정신은 일제의 기염을 꺾어놓았으며 일제의 식민침략정책에 커다란 타격을 가함으로써 조선국내 대중들의 반일애국투쟁을 크게 고무하였고 나아가 동북지역 기타 민족들의 반제운동도 크게 추진하였다. 특히 이번 투쟁에서 민족독립사상, 민주주의, 자유평등정신, 자산계급인도주의 등 자산계급민주주의사상이 널리 전파되면서 한인동포들은 자신들이 바로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주력군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결과 이번 운동을 계기로 동북지역의 반일투쟁은 기존의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운동에서 본격적인 무장투쟁으로 전환되어 갔다.

(2022.11.07. 투고 / 2022.12.07. 심사완료 / 2022.12.13. 게재확정)

[Abstract]

## The 3·1 Movement in the Northeast Part of China

JIN, ChunShan
CUI, GuangFu

The northeast part of China was the main stage of the resistance against Japanese aggression and independence activities for Korean people during the period when Japan colonized Korea. In order to echo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 Korean people living in the northeast part of china launched many counter-Japanese rallies and protests to support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 which had great influence both on the governing and policy-making process of Japan.

Beside the introduction and the conclusion, this paper consists of two main parts. In the first part , it first reviews the outbreak and process of the 3·13 Counter-Japanese protest in Longjing Village , Gan Do , aiming at supporting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 And then , with the rapid spread of the 3·13 counter-Japanese protest movement in Longjing Village to the whole northeast part of China, this paper makes their detailed comparisons and analyses by regions and catalogs. In the second part , it takes the 3·13 Counter-Japanese protest movement in Longjing Village as an example to conduct a general investigation of the regional features, significance and impact of the counter-Japanese protest movement carried out in the whole northeast region.

From March to April 1919, the various counter-Japanese rallies and protests held in the Korean-populated areas of northeast China were unprecedented in scale and time span. This movement was a peaceful and great counter-Japanese protest movement in northeast China in support of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 within a developed international context of nationalism of self-determination echoing the October Revolution and the First World War by in the colonial and semi-colonial countries of the world, including Korea. In this campaign, Korean people held rallies and protests to expose and condemn the aggressive atrocities of Japanese imperialism, and their indomitable counter-Japanese will at the same time. The high counter-Japanese momentum and indomitable spirit of the Korean people have undoubtedly dampened the arrogance of Japanese imperialism. It did serious damage to the colonial aggression policy of Japanese imperialism, and greatly encouraged the anti-Japanese patriotic activities back in Korea, and thus greatly promoted the anti-imperialist movement of other Chinese ethnic groups in the northeast region. What's more, with the wide spread of bourgeois democratic ideas such as national independence, democracy, the spirit of freedom and equality, and bourgeois humanitarianism, Korean people have re-realized that they are the main force of the counter-Japanes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Hence Taking this movement as an opportunity, the counter-Japanese activities in northeast China not only became an opportunity to transform from the existing peaceful rallies and protests into a formal armed fight, but also contributed greatly to the establishment of a sense of social and national identity among Korean

people in northeast China.

□ Keyword

Korean people society, Northeast China, 3·1 Movement, Independence Movement, Gan Do, Governer of Yanji-Do

[참고문헌]

1. 사료 및 자료

『연길현연길부문집』 28권, 연변조선족자치주당안관장서, 1913년.

길림동남로관찰사서, 「훈령 제77호」, 「포고 제11호」, 1914년 3월 12일.

『일본외무성육해군성문서』, 1918-1919년.

중화민국당안자료, 「길림성장이 외교부에 보낸 전문」, 중화민국 8년 3월 12일.

중화민국당안자료, 「연길도윤과 맹부덕이 성장과 독군에게 올린 보고」, 중화민국 8년 3월 13일.

연길도윤공서, 「군경들이 조선인을 쏴 죽여 인심이 분노해진 데 대한 조사명령」, 중화민국 8년 3월 14일.

중화민국당안자료, 「한민들이 한국회복 선언에 관한 건」, 중화민국 8년 3월 16일.

중화민국당안자료, 「길림성장공서 비밀지령 제18호」, 중화민국 8년 3월 17일.

중화민국당안자료, 「룡정촌상부국장의 보고」, 중화민국 8년 3월 20일.

중화민국당안자료, 「훈춘현 웅지사의 보고」 중화민국 8년 3월 22일.

중화민국당안자료, 「맹은원, 곽종희 등이 총통총리에게 보낸 전문」, 중화민국 8년 4월 1일.

2. 저서

강덕상 편, 『현대사자료』 26·27, 미스즈책방, 1977.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3, 1983.

김양 저, 『압록강류역의 조선민족과 반일투쟁』, 료녕민족출판사, 2001.

김영호 편, 『항일운동가의 일기』, 서문당, 1975.

김정규, 『야사』 (15), 1919.

김정명, 『조선독립운동』 3, 원서방, 1967.

김정주 편, 『조선통치사료』 제10권, 한국사료연구소, 1971.
김춘선 주편, 『중국조선족통사』 상, 연변인민출판사, 2009.
김춘선 주필, 『중국조선족사료전집』 력사편 항일투쟁사 제2권, 연변인민출판사, 2011.
김춘선, 『북간도 한인사회의 형성과 민족운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김희곤, 『중국관내 한국독립운동단체 연구』, 지식산업사, 199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0, 197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독립운동사』 3, 1973.
룡정3·13기념사업회·연변력사학회·연변해외문제연구소 편찬, 『룡정3·13반일운동80돐기념문집』, 연변인민출판사, 1999.
리광인, 「백포 서일총재 평전」, 『만주벌의 혼—독립군 총재 서일』, 백포서일기념사업회, 2011.
석원화, 『한국 독립운동과 중국」, 상해출판사, 1995.
양소전,이철환 편, 『동북지구조선인혁명투쟁자료휘편』 상, 료녕민족출판사, 1992.
연변대학민족연구소 편, 『조선족연구론총』 3, 연변인민출판사, 1991.
연변정협문사자료위원회 편, 『연변문사자료』 제5집, 1988.
牛丸潤亮 외, 『最近間島事情』, 朝鮮及朝鮮人社, 1927.
윤병석, 『국외 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일조각, 1995.
이관직, 『우당이회영실기』, 을유문화사, 1985.
이극로, 『고투40년』, 을유문화사, 1946.
정협길림성훈춘현위원회문사자료위원회 편, 『훈춘문사자료』 제1집, 1985.
정협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 『연변문사자료』 제2집, 1984.
한국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3, 1968.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중국 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1997.

홍상표, 『간도독립운동소사』, 한광중학교, 1966.
환인현민족사무위원회 편찬, 『환인현조선족지』, 내부발행, 1988.

3. 신문

《국민일보》, 1919년 3월 24일자.
《독립신문》 제29호, 1919년 11월 20일자, 1920년 1월 10일자, 22일자.

4. 논문

김규철, 「룡정촌 "3·13"반일시위투쟁」, 『룡정문사자료』 제1집,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룡정현위원회문사자료연구위원회, 1986.
김동화, 「3·13항일독립시위 운동에 대해」, 박성수 외, 『독립운동사의 제문제』, 범우사, 1992.
김종식, 「만주의 3·1만세운동의 첫 봉화 – 삼원포 3·1운동 –」,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중국동북지역한국독립운동사』, 집문당, 1997.
리수권, 「장백현 조선족 인민의 반일 시위운동」, 『중국조선족발자취총서(1) 개척』, 민족출판사, 1999.
송우혜, 「「대한독립선언서」(세칭 「무오독립선언서」)의 실체」, 『역사비평』, 3호, 1988.